

S2W 회사소개

| Who Are We?



비전: 사이버 공간이 보다 안전한 세상이 되는 기술을 제공하는 것

사이버 공간 내 생활이 더욱 넓어지며,
범죄자들은 주 수익 출처로서
“사이버 공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서는,
사이버 위협보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력이 요구됩니다.

사이버 위협은 크게 아래 3가지로 구분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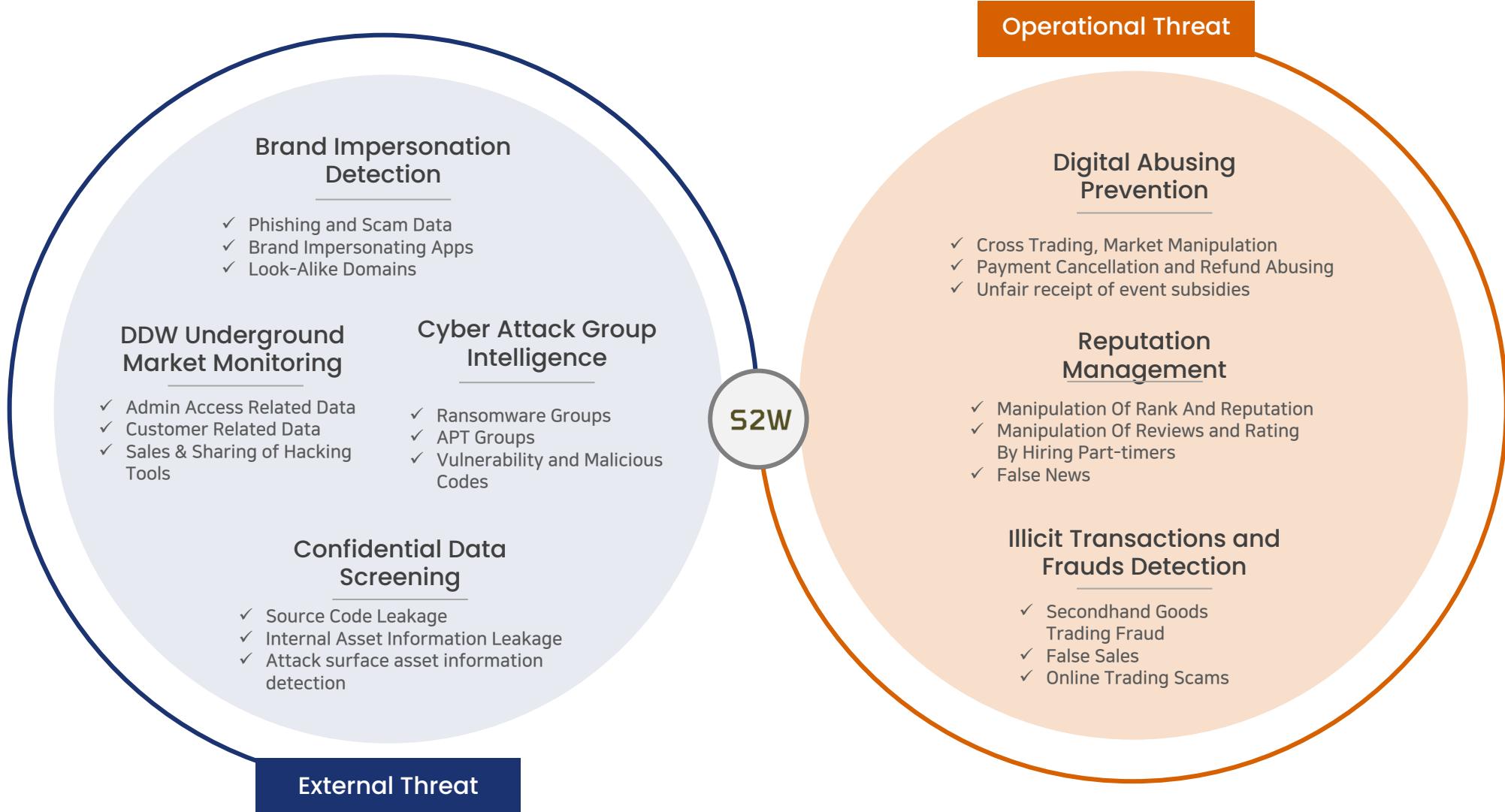
- 랜섬웨어 등 해킹을 통한 자산 공격/침해
- 마약, 도박, 성착취물 등 불법/반사회적 활동
- 플랫폼 내 사기, Bot 이용 조작 등의 어뷰징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인텔리전스 요소 기술

- 사이버 우범지대 가시성 확보 기술
- 위협 요소의 탐지 및 위험도 평가 역량
- 빅데이터의 관계기반 분석 및 추론엔진 기술

S2W Service Coverage

S2W는 다크웹/해킹 공격 등 외부 위협과, 플랫폼 특징을 악용한 악성행위를 주로 탐지



| Why S2W?

Collect: S2W는 자동화된 데이터 수집 기술력으로 풍부한 위협 데이터를 보유

Collect

1.5M

Darkweb domains

90M+

Darkweb pages

5M+

Document files

20B+

Credent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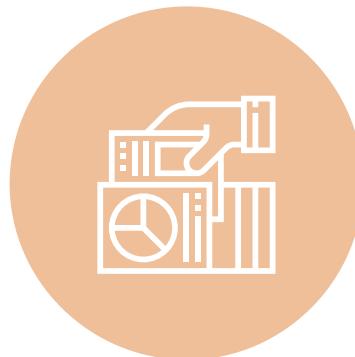
100M+

Images



Data Collection

Collects various types of data from a wide range of sources for analysis



Data Refinement

Extract key elements from collected data

60+

Data Category

20+

Identifier

Identif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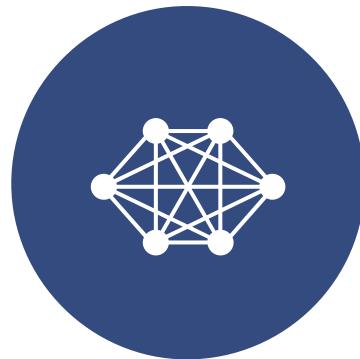
Unknown threats

| Why S2W?

Connect: S2W 지식 그래프를 기반으로 actionable intelligence를 제공

Conn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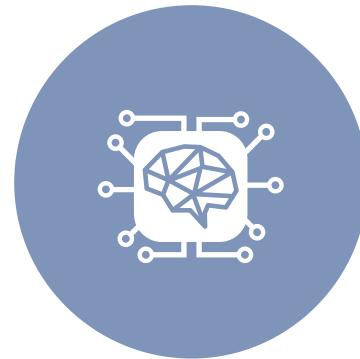
110M+
Graph nodes



24+
Node Types

Knowledge
Graph

Identify hidden threats by
analysing connections
between collected data



180M+
Graph Edge

Actionable
Intelligence

Extract information needed
to provide appropriate
intelligence

Threat
w/ in-depth analysis

Digital Abusing
w/ Deep-learning

Cryptocurrency
w/ On-chain monitoring

I S2W Solution Overview

XARVIS

Comprehensive deep/dark web monitoring solution



Integrated search engine

딥다크웹 내 정보에 관한 통합 검색을 지원하며, 텍스트/이미지/사이트 등 다양한 검색 지원



Chronological web browser

다크웹 데이터를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저장하여 안전하고 효율적 검색 지원



Real-time deep/dark web monitoring

효과적 딥다크웹 모니터링을 위한 맞춤형 대시보드 구현 및 추천 정보 제공



Multi-domain cross-analysis

다양한 식별자 간 관계 분석이 가능한 그래프 분석 도구



User profiling tool, 'Darkspider'

다크웹 주요 사이트 유저에 관한 정보 검색 시스템으로, 유저 프로파일링에 활용



Analysis report

다크웹 트렌드 및 중요 이슈에 관한 분석가 인사이트 지속 제공

quaxar

Cyber Threat Intelligence (CTI) solution for external threat



Digital Risk Protection

피싱, 브랜드 사칭 등에 관한 정보를 탐지하고, 딥다크웹 내 위협 정보를 지속적으로



Active Threat & Vulnerability Mgmt.

악성코드 및 취약점 정보 분석, 최신 IOC 정보, 위협 그룹에 관한 정보 제공



Data Breach Detection

딥다크웹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 내 개인정보, 기밀정보, 소스코드 등 민감 정보 유출 탐지



Lightning Report

최신 딥다크웹 및 위협 인텔리전스 정보, 고객사 니즈에 맞는 정보 제공



Incident Response

침해사고 발생에 따른 조사 및 관련 정보, 조치 방안 지원



Take-down Service

피싱, 브랜드 사칭 사이트, 불법적인 딥다크웹 게시글에 관한 삭제 및 테이크다운 조치 지원

Working with public sector

국경 없는 사이버 위협 해결을 위해 첨단 기술력과 분석 인텔리전스 제공



Cyclone 작전 | Clop 랜섬웨어 검거 작전

- 원점 추적 위한 Clop 관련 인프라 정보 분석
- Clop 랜섬웨어 비트코인 자금흐름 분석
- 다크웹 내 Clop 랜섬웨어 오퍼레이터들의 활동 분석 및 프로파일링

Bitdefender supported operations by releasing tailor-made decryption tools to unlock ransomware and enable victims to recover files. These innovative tools enabled more than 1,400 companies to decrypt their networks, saving them almost EUR 475 million in potential losses.

KPN, McAfee, S2W helped investigations by providing cyber and malware technical expertise to INTERPOL and its member countries.

Operation Quicksand continues to supply evidence that is feeding into further cybercrime investigations and enabling the international police community to disrupt numerous channels used by cybercriminals to launder cryptocurrency and commit ransomware crime.

Quicksand 작전 | Gandcrab & Revil Sodinokibi 검거 작전

- 악성코드 관련 분석 정보
- 공격 그룹 관련 정보 제공

ANALYTICAL REPORT

Online African organized crime from surface to dark web

S2W가 제공한 분석 내용으로 발간한 인터폴 내부 보고서

Crime-specific keywords in dark web domains, other dark web:

- Drug 3.2%
- Smug 2.8%
- Trafficking 1.8%
- Credit 1.6%
- Sex 1.4%
- Crack 1.2%
- Heroin 1.1%
- Marijuana 1.0%
- Ecstasy 0.9%
- Amphetamine 0.8%
- Other 0.7%

Figure 18. Dark web screenshot of a vendor site

온라인 아프리카 범죄 조직 분석

- 다크웹 내 아프리카 관련 범죄 분석 제공 (마약, 인신매매, 밀수 등)



국정원, 민관 공동대응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문

▲ 강진규 기자 | © 입력 2022.11.30 18:10 | ◎ 수정 2022.12.01 07:32 | Ⓜ 댓글 0

| 사이버위협에 맞서 국정원, 유관기관 및 IT보안업체 소통 창구 마련



Digital today

30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컷팅식을 하고 있다. 백종록 국정원 3차장 (왼쪽 네번재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규현 국정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회, 유상범 국회 정보위 간사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국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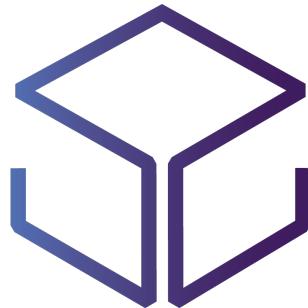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국가정보원과 민관이 함께 사이버위협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센터가 문을 열었다.

국가정보원은 30일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조해진 국회 정보위원회, 유상범 정보위 간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동범 정보보호산업협회장, IT업체 대표 등 정보보안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사이버안보협력센터는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가 갈수록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공격에 맞서 민관이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개소했다.

센터에는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앤랩, 이스트시큐리티, S2W, 체이널리시스 등 IT보안업체 전문 인력들이 함께 근무한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앤랩, 이스트시큐리티, S2W,
체이널리시스 등 IT 보안업체 전문 인력들이 함께
근무한다.



S2W

Safe and Secure World

For any inquiries, please contact
info@s2w.inc

www.s2w.inc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is proprietary and confidential.
If you are not the intended recipient, please note that any use or circulation of this document may be cause for legal action.